



10.19, 기획행정위 강태원의원님의

道政質問 書面答辯



忠清北道

<질문 및 답변 내용>

□ 강태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시 서면으로 답변요청하신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기업유치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울러 민간대기업의 임원으로서 계시면서 경험하셨던 공직 사회 갖고 있는 문제점, 어떻게 변화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도권에는 기업하기 좋은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경쟁에서 이기기는 힘들지만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우리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도가 유치하려는 타깃기업을 정하여 집중 공략한다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려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는 의원님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제가 직접 수도권에

있는 CEO를 직접방문하고 기업 CEO를 초청하여 청풍
아카데미 강의를 실시하는 등 우리 도가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면서 투자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도와 시·군이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해가며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정지역인 수도권만을 염두해 두지
않고 전 자치단체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지사님께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도
에서도 수도권 기업만이 아닌 타 시·도 이전기업이나
우리도내 소재 기업 증설시 파격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개정조례가 입법예고중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
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공장설립관계는 인·허가 업무이므로 일선 실무

부서 담당자들은 감사시마다 주요 타깃이 되어 기피하거나 또는 규제일변도로 업무처리를 해서 대다수 기업인들의 주요 불만사항이자 공무원들의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 및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관리자 혁신 워크숍과 도, 시·군 인·허가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리도의 기업유치 현실과 공무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기업유치 마인드 제고와 의식을 변화 개선해 나가는 한편,

투자유치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기업지원 시책에 대하여는 감사를 유보하는 시책을 내년부터 시행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장애요인도 병행하여 제거해 나가는 등 기업하기 가장좋은 경제특별도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